

지표 부진·유가 하락에도 여전한 금리 경계, 3대지수 하락

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hyseong@ls-sec.co.kr

3 대지수 하락폭 낮추었지만 동반 약세, AI 속도조절 우려 완화

- 미 증시는 DOW -0.26%, S&P500 -0.17%, NASDAQ -0.09% 하락. 유틸리티 강세, 에너지, 소재 약세
- 높은 국채금리 레벨이 증시 지속 압박하는 한편, 사우디 홍해 원유 수출 재개 소식에 국제유가는 하락 WTI \$89.4(-3.5%), Brent \$102.6(-2.6%)
-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+1.3%. 메타(+3.2%), 오라클(+3.9%) 등이 기업용 AI 에이전트를 신규 공개하며 기대감을 더한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AI 기업 수장들과의 오찬 모임 이후 정부 차원의 AI 규제에 대해 자율에 맡기겠다 선언을 그은 영향
- 한편, 엔비디아(-0.7%)·AMD(-0.0%)가 대중국 AI 칩 규제 저지를 위해 미 정부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
- 앞서 골드만삭스에서 짚은 S&P500 지수의 낮은 시장폭과 관련해, HSBC 에서는 역발상 관점에서 증시 과매도 상태를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하는 의견

유가 하락·경제지표 부진 불구 높은 레벨 유지한 국채금리

- 국채금리 혼조 10Y 5.256%(+1.6bp) 2Y 4.889%(-3.5bp) 다음거래일 발표 예정인 PCE 물가지표를 경계하는 한편, 파라마운트(-2.8%)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 우려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이어진 영향. 바클레이즈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중립금리 상승 영향으로 30Y 6%까지 상승 여지가 있다고 진단
- 경제지표는 대체로 부진. 8 월 JOLTs 보고서 구인건수 707.9 만건 전월·컨센 하회, 구인 및 해고 모두 동반 약화 기초. 9 월 CB 소비자신뢰지수 역시 81.9 전월·컨센 하회
- 연준 위원 발언도 대체로 매파적이었으나, 윌리엄스 총재가 9 월 취한 정책 조치로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연말까지 1 차례 추가 인상이 적절하다고 발언하며 2Y 하락 전환, CME FedWatch 10 월 인상확률 50%대까지 하락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META	메타	+3.2%	중소기업용 AI 에이전트 '뮤즈 포 스몰 비즈니스' 공개 및 호주 AI 인프라기업 퍼머스와 AI 인프라 계약 체결 소식에 상승 마감. 뮤즈·비즈니스 에이전트·뮤즈 API·뮤즈 코드로 구성된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출시했으며, 전 몽고DB CEO CJ 데사이가 총괄. 인스타그램·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 및 광고 계정과 연동되며, 아사나·슬랙·줌 등 업무용 툴과도 통합. 한편 퍼머스는 엔비디아(-0.7%) DSX 플랫폼 기반 동남아 데이터센터 GPU 용량을 메타의 AI 연구·모델 학습용으로 제공, 계약 규모는 미공개
BE	블룸에너지	+10.8%	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15.8만 제곱피트 규모 신규 시설 매입 및 RBC·제프리스의 긍정적 리포트에 추가 급등. RBC는 프리몬트 시설을 근거로 투자의견 '시장수익률 상회', 목표가 \$335 유지. 제프리스는 목표가 \$229→\$264 상향. 모건스탠리는 이번 시설 매입이 지속적인 강한 수요를 보여준다는 평가
ORCL	오라클	+3.9%	기업용 AI 에이전트 실행 플랫폼 '퓨전 클로' 공개에 추가 상승. 퓨전 클로 기반 전문 업무용 에이전틱 앱 25종을 출시. 이에 에이전틱 앱 포트폴리오는 기존 75종→ 100종으로 확대. 금융서비스 부문은 금융기관의 금융범죄 조사·컴플라이언스용 AI 에이전트 '넥서스 케이스 플로우'와 '넥서스 리치'를 출시
GM	제너럴모터스	-0.2%	미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여파로 소형 전기차 볼트 생산량 75% 감축 소식 속 약보합 마감. 한편 마크 로이스 CEO는 지난주 사상 최고치 수준의 디젤 가격이 일시적 현상이라며, 디젤 엔진 트럭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 언급
TGT	타겟	-1.3%	연말 쇼핑시즌 앞두고 의류·침구 등 약 2,000개 품목 추가 가격 인하 발표. 일부 의류는 전년 대비 최소 20% 인하, 침구는 평균 15% 인하. 한편 월마트(-1.8%)는 앞서 8월 약 1.1만개 품목 가격 인하 계획을 발표